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 조사

김희경¹ · 김경미² · 김선일³ · 김은주⁴ · 남궁은정⁵ · 배수명⁶ · 손정희¹ · 신보미⁶ ·
신선정⁶ · 엄미란¹ · 이민선² · 이혜린⁵ · 최용금⁷ · 최진선⁵ · 류다영^{8†}

¹대원대학교 치위생과, ²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³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⁴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⁵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⁶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및 구강과학연구소,

⁷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치위생학과 및 유전체 기반 바이오IT 융합연구소, ⁸혜전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8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14.8%)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총 인구의 21%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요양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형태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 중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우식경험치아가 많고, 잔존치아는 매우 낮으며 의치 필요자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 구강건강 상

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구강건강관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구강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을 경우 구강 상주균에 의해 흡인성 폐렴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⁴⁾ 구강관리 소홀로 인한 전신질환과 구강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의 구강관리가 중요하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활동 시 거동불편 등으로 시설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구강건강을 위한 관리행위 역시 자발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⁵⁾. 따라서 요양기관 입소노인 가까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구강건강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강건강관리 실태⁶⁻⁸⁾, 구강보건지식수준 및 인식도⁹⁻¹³⁾, 구강건강관리 행태¹⁴⁾ 및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행과 관련된 요인¹⁵⁾ 등은 있었으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요구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실

접수일: 2019년 12월 9일 최종수정일: 201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20일

교신저자: 류다영,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혜전대학교 치위생과

Tel: 041-630-5279, Fax: 041-630-5176

E-mail: sol0807@hj.ac.kr

적으로 구강건강관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일부 분으로 인식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거나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어려움과 지식이 부족하여⁹⁾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구강건강 관리법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강건강관리 실태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구체적으로 원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이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입소 노인에게 일상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건강관리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구강건강관리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구강건강관리 시 필요한 구강건강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11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47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한 217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정 등⁶⁾과 김 등¹³⁾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구강건강관리교육 수혜,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틀니관리 실태,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에 대한 문항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통계 방법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했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구강건강관리 실태 및 틀니관리 실태에 관한 문항 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50대가 59.9%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하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93.1%였다.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경력은 5년 이상이 32.3%, 1년 이상 3년 미만이 30.4%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의 평균연령대는 80세 이상이 48.8%, 70~79세가 48.4%였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 30.9%, '매우 건강하다' 4.6%, '보통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38.7%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ategory		N	(%)
Total		217	100.0
Sex	Male	9	4.1
	Female	208	95.9
Age(y)	≤ 49	34	15.7
	50~59	130	59.9
	≥ 60	53	24.4
Education level	≤ Middel school	66	30.4
	High school	129	59.5
	≥ College	22	10.1
Marital status	Single	9	4.1
	Married	202	93.1
	Etc	6	2.8
Service career(y)	> 1	32	14.7
	1~3	66	30.4
	3~5	49	22.6
	≥ 5	70	32.3
Average age of the elderly in care management(y)	≤ 69	6	2.8
	70~79	105	48.4
	≥ 80	106	48.8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unhealth	7	3.2
	Unhealth	49	22.6
	Normal	84	38.7
	Health	67	30.9
	Very health	10	4.6

3.2. 영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 교육 수혜정도

요양보호사의 75.6%가 요양노인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요양원에서 입소노인을 위한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받은 사람은 32.9%였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64명의 교육내용을 조사한 결과 틀니관리방법 80.5%로 가장 높았으며, 칫솔질방법 75.0%, 구강건강관리 필요성 60.4% 순이었다. 만약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겠냐는 문항에는 대상자의 92.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주기적인 교육 개설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70.5%였다(Table 2).

3.3. 요양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실태

요양보호사의 65.0%가 '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해 주고 있었고, 대부분은 칫솔과 치약(92.2%)을 사용하고 있었고, 거즈(41.0%)나 구강양치액(41.0%)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칫솔질은 대부분 위아래(49.8%)나 잇몸부터 위아래로 닦아주고(28.6%) 있었으며, 칫솔모가 위로 가게 보관하거나(32.7%), 칫솔소독기에 보관(33.6%)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요양노인은 스스로 관리가 불가능하여 영양보호사가 전담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72.7%)(Table 3).

Table 2. Benefits of oral health care education for care worker

Category		N	(%)
Oral health training experience	Yes	164	75.6
	No	51	23.5
	Don't know	2	0.9
Oral health training course*	When a licence is obtained	54	32.9
	Geriatric care helper self training	77	47.0
	Specialist training	29	17.7
	Non-response	4	2.4
	Total	164	100.0
Oral health training contents* (multiple response)	Necessity of oral health care	99	60.4
	Tooth brushing method	123	75.0
	Denture management method	132	80.5
	Oral and external massage method	35	21.3
	Action method for finding intra-oral problems	31	18.9
	Methods for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 who cannot swallow food	50	30.5
	Methods for managing the elderly with dry mouth	43	26.2
	Nutrition control method	19	11.6
Willing to be educated at the beginning of education	Yes	200	92.2
	No	9	4.1
	Don't know	8	3.7
Number of requests for education opening	one-time education	60	27.6
	periodic education	153	70.5
	Etc.	4	1.8

* Only subjects who reported having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were analyzed.

Table 3. Oral health care status for the elderly

Category		N	(%)
Total		217	100.0
Number of toothbrushing(natural tooth)	After every meal	141	65.0
	Twice a day	55	26.3
	Once a day	2	0.9
	Once every two days	1	0.5
	Once every 3 or 4 days	14	6.5
	Etc.	1	0.5
	Oral hygiene control products*	Toothbrush and toothpaste	200
	Gauze	89	41.0
	Mouthrinse	89	41.0
	Dental floss	4	1.8
Tooth brushing method	Wipe sideways	23	10.6
	Wipe up and down	108	49.8
	Wipe the gums up and down from the gums	62	28.6
	Wipe in circles	21	9.7
	Etc.	3	1.4
	Non-response	3	1.4
Toothbrush storage method	Store in a toothbrush sterilizer	73	33.6
	Storage in a cabinet	23	10.6
	Store separately(a toothbrush head up)	71	32.7
	Store separately(a toothbrush down)	11	5.1
	a well-ventilated place	33	15.2
	Etc.	4	1.8
	Non-response	6	2.8

Table 3. Oral health care status for the elderly (계속)

	Category	N	(%)
Oral Hygiene Management	Self-care for the elderly	14	6.5
	Care by a geriatric care helper	158	72.8
	Oral care of only a small part of the elderly	42	19.4
	Etc.	1	0.5
	Non-response	2	0.9

* Oral hygiene care products only show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subjects who answered using each item (multiple response).

3.4. 요양노인을 위한 틀니관리 실태

요양보호사는 틀니 세척을 칫솔질 할 때마다 한다고 65.0%가 응답하였고, 치약과 칫솔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7.3%, 틀니 세척 시 틀니세정제를 사용한다고 61.8%가 응답하였다. 98.2%는 틀니를 주로 찬물에 담가 보관하고 있었다(Table 4).

3.5.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는 4.22점(5점 만점)으로 높았으며,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4.29점), 연하장애가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치매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음식을 씹기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법(4.2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요양보호사의 구강보건교육 수혜 여부에 따른 교육 요구도는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Table 6).

Table 4. Denture cleansing status

	Category	N	(%)
Total		217	100.0
Denture cleansing frequency	Every time brush my teeth	141	65.0
	Once a day	40	18.4
	Once every two to three days	20	9.2
	Etc.	11	5.1
	Non-response	5	2.3
Denture cleansing methods*	Use toothpaste and toothbrush	81	37.3
	Using a toothbrush and kitchen detergent	49	22.6
	Use only toothbrushes	38	17.5
	Use denture cleanser	134	61.8
	Use of toothbrush and soap	13	6.0
	Etc.	2	0.9
Denture storage method	Store in cold water	213	98.2
	Etc.	2	0.9
	Non-response	2	0.9

* Denture cleansing methods only show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subjects who answered using each item(multiple response).

Table 5.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care worker

Category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M ± SD
Necessity of oral health care	4.29 ± 0.60
Tooth brushing method	4.23 ± 0.65
Denture management method	4.20 ± 0.70
Oral and external massage method	3.97 ± 0.72
Action method for finding intra-oral problems	4.26 ± 0.73
Methods for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 who cannot swallow food	4.27 ± 0.61
Methods for managing the elderly with dry mouth	4.22 ± 0.61
Car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4.27 ± 0.59
Nutrition control method	4.27 ± 0.58
Total	4.22 ± 0.51

Table 6. Oral health education needs according to variable

Category	N(%)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M ± SD	p-value	
Sex	Male	9	4.14 ± 0.88	0.614
	Female	208	4.22 ± 0.49	
Age(y)	≤ 49	34	4.39 ± 0.51	0.058
	50~59	130	4.22 ± 0.46	
	≥ 60	53	4.12 ± 0.60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66	4.21 ± 0.42	0.912
	High school	129	4.22 ± 0.53	
	≥ College	22	4.26 ± 0.69	
Marital status	Single	9	4.39 ± 0.40	0.579
	Married	202	4.21 ± 0.52	
	Etc	6	4.22 ± 0.51	
Service career(y)	> 1	32	4.22 ± 0.52	0.304
	1~3	66	4.30 ± 0.47	
	3~5	49	4.12 ± 0.47	
	≥ 5	70	4.22 ± 0.57	
Average age of the elderly in care management(y)	≤ 69	7	4.30 ± 0.60	0.918
	70~79	49	4.20 ± 0.61	
	≥ 80	84	4.19 ± 0.50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ery unhealth	67	4.26 ± 0.43	0.605
	Unhealth	10	4.23 ± 0.57	
	Normal	6	4.09 ± 0.30	
	Health	105	4.25 ± 0.46	
	Very health	106	4.20 ± 0.56	
Oral Health Training Experience	Yes	164	4.21 ± 0.51	0.523
	No	51	4.26 ± 0.53	

4. 고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구강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부족으로 구강건강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구강건강관리가 전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구강건강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및 실제로 구강건강관리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하, 결혼여부는 기혼자, 근무연수 5년이상, 시설 관리노인은 8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김 등¹³⁾의 연구, 배 등¹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75.6%가 요양노인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경로는 요양원에서의 입소노인을 위한 자체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47.0%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받은 사람 32.9%보다 더 많았다. 박¹⁶⁾은 응답자의 80.0%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지만, 배 등¹⁴⁾은 34.0%가 요양원에서 자체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구강관리교육은 극히 적은 시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강관리교육이 적절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도 요양원의 입소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강보건교육 수혜내용을 조사한 결과 틀니관리방법이 가장 많았고, 칫솔질 방법과 구강건강관리 필요성 순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전 등⁹⁾이 틀니관리와 이닦기 방법이 가장 많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명확히 동기부여가 되어야 행동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개설 시 참여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대상자의 92.2%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주기적인 교육을 개설하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소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는 자연치 관리 시 매 식사 후에 칫솔질을 해주고 있었고, 칫솔질은 대부분은 위아래(49.8%)나 잇몸부터 위아래로 닦아주고(28.6%) 있었고, 칫솔모가 위로 가게 보관(32.7%)하거나 칫솔소독기에 보관(33.6%)하였다. 칫솔질 시 대부분 칫솔과 치약(92.2%)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즈(41.0%)나 구강양치액(41.0%)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에게 매 식사 후에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연구결과⁶⁾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김 등의 연구¹⁰⁾보다 좀 더 사용률이 높았으나, 칫솔질 또는 구강양치액만으로 치간사이의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치실, 치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입소노인의 대부분은 스스로 관리가 불가능하여 요양보호사가 전담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조금 도움을 주면 일부는 노인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 구강건강관리 교육 시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관찰교육을 시행하여 입소노인에게 구강관리를 스스로 적절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틀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틀니세척은 조사대상자의 65.0%가 칫솔질을 할 때마다 한다고 응답하였

고, 61.8%가 세척 시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지만 37.3%가 치약과 칫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틀니의 주재료인 레진은 치약을 묻히면 연마제 성분 때문에 닳거나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¹⁷⁾에서 의치 세척 시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치약이나 의치세정제를 이용하여 틀니를 닦도록 제시하고 있어 교재의 수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으로 높았다. 내용별로 요구도를 보면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4.29점), 연하장애가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치매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음식을 씹기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법(4.27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박의 연구¹⁶⁾에서는 구강건강관리 교육요구에서 정상치아와 잇몸구조, 구강관리 거부노인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다. 전 등⁹⁾은 구강건강관리가 미흡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구강질환, 저작문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강건강관리 내용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요양시설 근무자인 요양보호사를 편의 추출하였기에 설문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의 현재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물론 구체적인 구강보건내용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방법 등을 조사하여 실제 현장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 이외에도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한 방문 지원활동을 하고 있기에 요양보호사의 업무 장소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의 적용 실태 및 시설 자체에서 진행되고 구강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들이 요양보호사와 같은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에 필요한 관련성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구강건강관리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충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11곳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217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의 75.6%가 요양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받은 구강건강관리 교육내용으로 틀니관리방법(80.5%), 칫솔질 방법(75.0%),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60.4%) 순으로 조사되었다.
2.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개설된다면 참여하겠다고 92.2% 응답하였고, 교육개설의 횟수는 70.5%가 주기적인 교육을 요구하였다.
3. 요양노인의 구강위생관리를 요양보호사 전담하여 시행한다고 72.8%가 응답하였으며, 틀니관리는 65.0%가 칫솔질 할 때마다 세척하고 있었다. 틀니세척 방법으로 틀니세정제 사용(61.8%), 치약과 칫솔 사용(37.3%), 칫솔과 주방세제 사용(22.6%) 순으로 조사되었다. 98.2%가 틀니는 찬물에 보관한다고 응답하였다.
4.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4.22점으로 높았으며,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

(4.29점), 연하장애가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치매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법(4.27점), 음식을 씹기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한 영양관리법(4.27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를 위한 구강건강관리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ORCID ID

Hee-Kyoung Kim : 0000-0001-7658-4055

Kyung-Mi Kim : 0000-0002-7175-9423

Sun-Il Kim : 0000-0002-6909-2914

Mi Ran Eom : 0000-0002-7205-7490

Hyerin Lee : 0000-0002-0427-7256

Yong-Keum Choi : 0000-0002-5537-4208

JINSUN CHOI : 0000-0002-9945-1375

Da-Young Ryu : 0000-0003-4356-6621

참고문헌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Retrieved June 26, 2019,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 RAWnB: LONG-TERM CARE INSURANCE ACT. Retrived November 15, 2019, from,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B0F74A7E963C_0_R10.
3.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Chung MK.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J Kor Acad Prosthodont* ;46(5):455-469. <https://doi.org/10.4047/jkap.2008.46.5.455>
4. Scannapieco FA, Bush RB, Paju S. Associations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risk for nosocomial bacterial pneumoni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n Periodontol* 2003;8(1):54-59. <https://doi.org/10.1902/annals.2003.8.1.54>
5. Park SY, Cho NI, Ju HJ, Lee SH, Oh HW, Lee HS.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nursing home employees to elderly resid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37(4):200-207. <https://doi.org/10.11149/jkaoh.2013.37.4.200>
6. Jung YM, Kim SM, Lee HJ, Cho YH, Lee S, Kim NH.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10;10(4):727-734.
7. Baek JH, Lee HJ, Choi HJ, Choi JH, Kim NK, Kwag JM et al. Content analysis of daily tooth cleaning service records by caregiver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 Dent Hyg Sci* 2014;14(6):903-913.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6.903>
8. Jung ES, Chio YY, Lee KH.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oral health care in senile dementia pati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4):601-614.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52>
9. Jeon HS, Han SY, Chung WG, Choi J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status on oral health care of geriatric care work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5):569-576. <http://dx.doi.org/10.17135/jdhs.2015.15.5.569>

10. Kim MY, Kang KH. Status of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care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ir oral health awareness and knowledge. *J Korean Conv Soc* 2016;7(6):161–16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6.161>
11. Kim GU, Kim JH.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care workers on the geriatric oral health. *J Korean Conv Soc* 2015;6(6):9–15.
<https://doi.org/10.15207/JKCS.2015.6.6.009>
12. Park SS, Park SH. A study on recognition of dental health care in caregiv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py* 2010;4(1):1–9.
13. Kim KM, Park YN, Lee MK, Lee JH, Yoon HS, Jin HY et al. Oral health knowledge level on oral care and elder oral hygiene care of the nursing home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 Korean Soc Dent Hyg* 2014;14(5):723–730.
<https://doi.org/10.13065/jksdh.2014.14.05.723>
14. Bae SS, Moon HY, Moon YM.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geriatric care helpers.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4;8(4):199–206.
<https://doi.org/10.21184/jkeia.2014.12.8.4.199>
15. Choi SE, Han MA, Park J, Ryu SY. Performance of elderly oral health management and related factors among care workers in long-term-care hospitals. *K Korea Soc Dent Hye* 2017;17(5):71–803.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791>
16. Park MS. Educational needs in the provision of oral care by nursing staff in long-term care facility for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 Nurs* 2010;12(1):72–80.
17. Ministry of Healht & Welfare. Caregiver training standard teaching material. Daekwang medical, Incheon, 2019;pp.259.

ABSTRACT

Oral health care status and educational needs of care workers

Hee-Kyoung Kim¹, Kyung-Mi Kim², Sun-Il Kim³, Eun-Ju Kim⁴, Eun-Jung Namkoong⁵,
Soo-Myoung Bae⁶, Jung-Hui Son¹, Bo-Mi Shin⁶, Sun-Jung Shin⁶, Mi-Ran Eom¹,
Min-Sun Lee², Hye-Rin Lee⁵, Yong-Keum Choi⁷, Jin-Sun Choi⁵, Da-Young Ryu^{8†}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won university college

²Dep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⁴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University

⁵Department of Preventive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⁶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⁷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and
Genome-based BioIT Convergence Institute, Sun Moon University

⁸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Introduction: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current oral health care status and demand of care workers for oral health education.

Method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care workers working in 11 nursing homes for older people located in the Chungcheongdo Province. Of those distributed, 21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18.0.

Results: The demand for an educational course on the 'Management of Oral Health Care for the Aged People' had a score of 4.22 points(full marks were 5.0 points), whereas the score for the necessity for control of oral health was 4.29 points. The control of oral health for the aged people suffering dysphagia scored 4.27 points, whereas the control of oral health for older people who have dementia was 4.27 points. The score for a course on the nutritional control for aged people having difficulties in masticating foods was 4.27.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urses and standardized manuals for care workers on aspects of oral health care is necessar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develop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dental hygienists to educate care workers on oral health.

Keywords: Aged people, Care worker,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education